



주은영(에이엠컴파스)

2013년부터 미술시장리서치회사인 에이엠컴파스를 설립, 운영하면서 아트페어는 오랜시간 동안 리서치 대상이었다. 특히 2017년 현대미술갤러리 AMC Lab 오픈을 준비하면서 아트페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다. 미술시장 전반에 걸친 서적 집필을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트페어 산업을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프로젝트 비아를 통해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아트바젤 페어를 방문하여, 세계 최고의 페어라고 불리는 아트바젤을 연구하고 이 기간동안 열리는 위성아트페어를 통해 아트페어 산업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아트바젤 개인리서치 뿐 아니라 상하이 아트021과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을 살펴보는 그룹 리서치를 함께 경험하면서, 아트페어 산업을 심도깊게 경험할 수 있었다.

개인리서치 : 스위스 바젤

먼저 사전 리서치는 올해 바젤 방문에서 필수적으로 봐야하는 기관 및 프로그램 스케줄링 및 올해 아트페어 프로그램 리서치, 그리고 인터뷰 진행 조율로 이루어졌다. 아트페어의 경우 해마다 페어 프로그램이 바뀌고, 현장에서 많은 분량을 소화해야하기 때문에 탄탄한 사전리서치가 필수적이다. 먼저 아트페어 기간동안 열리는 미술관 및 기관, 갤러리들의 전시를 확인하고 전체 스케줄링을 시작했다. 또한 아트페어마다 갤러리 리스트를 확인하고, 갤러리들이 어떠한 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하는지 확인했다. 아트페어 리서치를 진행할 때마다, 프레스로 등록을 해서 사전에 보도자료 등을 받아보는데 이러한 사전 리서치가 현장 리서치에 큰 밑거름이 된다. 또한 현장에서 주요 인사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약 두달 전부터 인터뷰 조율을 시작했다. 아트바젤 및 리스트 디렉터 인터뷰를 위해서 홍보담당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보냈다. 아트바젤의 경우 페어기간동안 디렉터의 인터뷰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디렉터가 하루에 소화하는 인터뷰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바젤 현지에서까지 디렉터 인터뷰 스케줄을 조정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 조율이 되지 않아서 아트바젤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아시아 홍보 담당자를 만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리스트의 경우 인터뷰가 빨리 확정되어, 질문지를 사전에 보내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VIP 오프닝 기간 동안 수많은 이벤트들이 바젤 도시 전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많은 미술관



계자들이 오프닝에 맞추어 바젤을 찾는다. 필자 역시 VIP 오프닝 기간에 맞추어 바젤을 방문하여 아트바젤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그랑아트투어 시즌에 맞추어 많은 사람들이 바젤 기간 동안 유럽을 찾았는데, 카셀 도큐멘타 오프닝을 보고 바젤로 넘어가는 기차에서 많은 미술관계자들을 보면서 아트와 투어리즘이 결합된 아트산업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베니스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아트바젤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전시 프로그램을 동일한 시기에 오픈시키고, 이 행사들이 하나의 대규모 이벤트로 성장하는 모습이었다.

바젤에서 총 4박 5일 일정으로 리서치를 진행했으며, 아트바젤, 리스트, 볼타 아트페어를 관람했으며, 아트바젤 기자회견 참석, 아시아 홍보 담당자 미팅, 리스트 디렉터 인터뷰를 수행했다. 이 외에 아트바젤 VIP 프로그램으로 열린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오프닝 파티와 바젤의 미술기관들 중에서 쿤스트할레 바젤, 바이엘러 파운데이션, HeK, 텅글리 미술관을 방문해 전시를 관람했다. 아트바젤은 기자회견부터 시작하여 VIP 오픈이었던 13일과 14일에 방문하였으며, 그리고 퍼블릭 오픈 첫날이었던 15일에는 바젤 시내에 펼쳐진 파쿠어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2017년 아트바젤은 35개국에서 온 291개의 갤러리가 참여하여 약 4,000명의 모던 & 컨템퍼러리 아티스트들을 선보였다. 올해 아트바젤에는 17개의 새로운 갤러리들이 등장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아트바젤의 브랜치인 아트바젤 마이애미 바젤과 아트바젤 홍콩에 참가한 경력이 있었다. 2017년 아트바젤에 처음 참가하는 갤러리들은 오클랜드(뉴질랜드), 카이로(이집트), 베이징(중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온 갤러리들이었으며, 5개 갤러리가 뉴욕(미국) 출신 갤러리였다. 특히 17개의 새로운 참가 갤러리 중에서 9개가 2010년 이후 설립된 갤러리들이었으며, 17개 중에서 8개가 아트바젤 섹터들 중에서 젊은 갤러리들을 위한 섹터인 Statements에 포진하고 있었다(Natalie Hegert, 'Who Are the New Galleries at Art Basel 2017', 2017.06.14). 한국의 경우 오랜시간 동안 국제갤러리와 PKM갤러리 만이 바젤 페어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보다 미술시장 역사가 짧은 중국의 경우 기존에 참여했던 세계의 갤러리 외에 안테나 스페이스와 매지션 스페이스 두 곳이 새롭게 등장하여 중국 갤러리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아트바젤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1층은 상대적으로 대형갤러리 및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갤러리들이 위치해 있었다. 2층은 상대적으로 더 컨템포러리한 작품을 취급하는 갤러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트바젤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에 페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4000여명의 작가의 작품이 소개되는 곳인 만큼 집중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메인 전시장을 방문했으며 방문 첫째날은 1층과 언리미티드를 둘째날은 2층을 관람하기로 동선을 짰다. 아트바젤 페어장에 들어선 순간, 미술관 급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각 갤러리마다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려고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천만 달러 이상의 작품들도 많이 보였으며, 올해 카셀 도큐멘타와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서 미술계 핫 스타로 떠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가고시안 갤러리는 도큐멘타14에 소개된 더글라스 고르돈의 작품을 리슨 갤러리는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와 수잔 힐러(Susan Hiller)의 작품을 그리고 하우스&위스는 도큐멘타14와 베니스 비엔날레 루마니아관에 소개되며 작품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게타 브라테슈(Geta Brătescu)의 작품을 선보였다.

아트바젤 한 달 전인 5월에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바스키아 작품 역시 여러 갤러리를 통해서 선보여졌다. 레비 고비 갤러리(Lévy Gorvy) 갤러리는 3,500만 달러의 트립티크 작품인 <Baby Boom>(1982)을 선보였으며, 아쿠아벨라 갤러리스(Acquavella Galleries) 역시 1,800만 달러의 작품 <Three Delegates>(1982)을 선보였다. 아트넷 뉴스 Julia Halperin의 기사 <Here Are All the Basquiats at Art Basel, Worth a Combined \$89 million, 2017.06.14.> 기사에 따르면 올해 아트바젤에서는 바스키아 작품이 약 8,900만 달러어치 선보여졌다고 한다. 이처럼 아트바젤은 현재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이처럼 세계 주요 갤러리들이 가장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걸기 때문에 아트바젤은 단연코 아트페어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이유에는 아트바젤의 기획 프로그램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0년 첫 선을 보인 <언리미티드 섹터>는 아트페어가 상업적인 고급 백화점이라는 비판에 맞서며, 미술관급 규모의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볼거리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형 전시장에 대규모 설치작품을 선보이는 섹터이므로 <언리미티드 섹터>에 전시한다는 것은 작가들에게 좋은 홍보 기회가 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언리미티드>를 기획한 큐레이터 지아니 예처(Gianni Jetzer)가 올해에도 기획을 맡아서 76개의 대규모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16,000 평방 피트의 대형 사이즈의 전시장에서 펼쳐진 <언리미티드>는 들어설 때부터 그 규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 작가인 크리스 버든의 마지막 작품인 거대한 비행선인 <Ode to Santos Dumont>(2015)가 전시장 상공을 날면서 관람객을 맞이하



고 있었다. 대형 설치작품, 비디오 프로젝션, 월 페인팅, 사진, 퍼포먼스 등 전통적인 아트 페어 전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미디어들의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언리미티드>는 이제 아트바젤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올해 전시작품 중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소개된 작품이 아마도 수보드 굽타(Subodh Gupta)의 <Cooking the World 1>(2017) 작품일 것이다. 콘티누아(Continua)갤러리와 하우스저&위스(Hauser & Wirth)에서 선보인 이 작품은 부엌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인도의 문화와 일상을 다룬 작품이다. 다양한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인도의 각지에서 모은 스테인리스 부엌 식기들로 거대한 셀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요리를 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송동의 <Through the Wall>(2016) 작품 역시 관람객들의 셀카존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은 베이징의 집들에서 버려진 문과 창문틀로 구성된 설치작품이다. 특히 이 문과 창문틀은 대부분 베이징의 역사적 장소인 후통 지역에서 수거되었는데 후통은 베이징의 옛 성내를 중심으로 산재한 좁은 골목길을 일컫는 지역으로 최근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관람객들이 직접 설치물 안을 걸으면서 소비, 축적, 낭비로 연결되는 작품을 경험하게 되는데 형형색색의 거울, 거울벽에 반사되는 램프 등이 반짝반짝 비추어 아이러니한 경험을 제공했다. 한국의 박찬경 작가의 작품 <Citizen's Forest>(2016)도 소개되었다. 시인 김수영이 시 '거대한 뿌리'와 오윤의 그림 '원귀도'를 모티브로 삼은 이 작품은 동학 농민 운동, 한국전쟁,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다루며 한구 근현대사를 겪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었다.

세계 유수의 갤러리들이 최고의 작품들을 걸었던 아트바젤 전시장, 대형 설치작품들이 관람객을 압도한 언리미티드 섹터, 그리고 바젤 도시를 걷다가 만나는 파쿠어(Parcours) 프로그램 등을 경험하며 아트바젤이 왜 명실상부 최고의 아트페어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아트바젤 디렉터 인터뷰는 안타깝게 무산이 되었지만, 인터뷰를 어레인지 해주었던 아시아 홍보 담당자인 Sutton PR의 티아 리앙을 만나 리뷰를 들을 수 있었다. 해마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라는 갤러리스트들이 올해에도 또 좋은 세일즈 결과를 냈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에는 올해 그랑 아트투어 시즌에 맞추어 많은 컬렉터들이 방문했던 것이 큰 이유였다.

아트바젤 이외에 위성아트페어로는 볼타 아트페어와 리스테 아트페어를 방문했는데 특히 리스테가 인상적이었다. 아트바젤이 열리는 메세 바젤(Messe Basel)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Warteck 빌딩에서 열린 리스테 아트페어는 1996년에 시작되어 21년째를 맞이한 리스테 아트페어는 80여개의 갤러리가 참여하는 소규모 아트페어이다. 아트바젤은 제작년에 이



어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제작년에 방문했을 때 Volta, Scope 등 타 위성아트페어에 비해 리스테에 대한 인상이 강렬해서 올해 바젤 리서치에서는 리스테 디렉터인 피터 블라우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리스테에는 79개의 갤러리가 참여했으며 이 중 15개가 새로운 참여 갤러리였다. 아트바젤이 거대한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세련되고 정돈된 전시장 레이아웃으로 페어가 열린다면, 리스테는 옛날 맥주 양조장 건물인 Warteck 빌딩에서 열린다.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빌딩은 1990년대에 사무실 공간으로 리모델링되었고, 현재에는 인쇄소 등 여러 소규모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빌딩이다. 페어기간동안 기존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40여개의 상인들이 공간을 내어주고, 그 공간에서 아트페어가 열리는 상황이 매우 흥미로웠다. 리스테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전시공간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리스테 전시장은 처음에 방문하면 자칫 공간을 둘러보는데도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곳이다. 기존의 화이트 큐브를 완전히 벗어난 형태의 이 페어 전시장은 참여 갤러리들에게 다소 도전적인 장소이지만, 젊고 신진 갤러리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리스테 페어의 성격과 잘 맞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현대미술의 현 시점을 드러내고 실험적이고 다양한 미술을 선보이겠다는 리스테의 비전처럼 다양한 미디어의 작품들이 다수 선보여졌다. VR 등 기술 기반의 작품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리스트에 디렉터인 피터 블라우어와의 인터뷰에서 블라우어는 타 위성아트페어와 리스테의 비교가 불가함을 강조했다. 수많은 위성 아트페어들이 자신들을 아트바젤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로 바젤에서 이 역할은 리스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기존에 리스테에 참여했던 갤러리들 중에서 세 곳이 올해 처음으로 아트바젤에 입성하였다. 베를린의 크라우파 투스카니 자이들러(Kraupa-Tuskany Zeidler), 상하이의 안테나 스페이스(Antenna Space), 뉴욕의 리얼 파인 아트(Real Fine Arts)가 바로 그들이다. 젊고 신진 갤러리들이 포진해 있어서 그런지 리스테는 다른 아트페어보다 훨씬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부스마다 머무는 관람객들이 많이 있었고, 갤러리스트들과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관람객들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트페어가 작품이 거래되는 장이지만, 리스테 참여 갤러리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작가를 홍보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리스테를 찾는 관람객들도 하나라도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피터 블라우어와의 인터뷰에서 리스테는 설립한지 1년 남짓의 신생 갤러리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아트페어 참가를 위해서는 3년 정도 비즈니스를 운영



했던 경력이 요구되는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신생 갤러리를 통해서 새로운 피를 해마다 수혈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는 리스테가 20년이 넘는 동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였다.

아트페어 외에 바이엘러 파운데이션, 쿤스트할레 뮤지엄, HeK,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톱글리 미술관 등을 방문하였다. 바젤 시내에서 트램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바이엘러 파운데이션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컬렉션과 기획전시로 유명하다. 특히 아트바젤 기간 동안 바이엘러 파운데이션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아티스트는 바젤 페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재작년 방문시, 마를린 뒤마(Marlene Dumas)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었고 바젤 페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었다. 올해에는 바이엘러 파운데이션에서 볼프강 킬먼스(Wolfgang Tillmans)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볼프강 킬먼스 역시 아트바젤에서 20점이 넘게 판매가 되었다고 발표되었다. 쿤스트할레 뮤지엄은 스위스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공공미술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재작년 방문시에는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어서 전체 공간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작년에 리모델링 후 새롭게 문을 열어서 전체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HeK(House of Electronic Arts Basel)이 인상적인 공간이었다. 디지털 문화와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미술형태를 선보이겠다는 전시공간인 이 장소는 특히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현대미술을 선보이는 공간이었다.

아트바젤을 돌아보면서 아트페어 산업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트페어의 성장은 갤러리 비즈니스의 변화 뿐 아니라 미술산업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아트 씨티를 표방하고 있는 세계 주요 도시들마다 자신만의 아트페어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 아트페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요 아트페어가 열리는 기간 동안 다수의 위성 아트페어들이 개최되고, 그 지역의 미술관, 갤러리, 미술기관들이 주요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미술축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아트바젤과 바젤의 미술기관들을 돌아보고, 또한 아트바젤 VIP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바젤 전체에 부는 아트바젤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상하이 아트워크: 아트021 VS.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

그룹리서치로 진행된 상하이 리서치는 5박 6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한국에서 모더레이터, 프로그램 담당자,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자들이 모두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를 통해 각자 상하이 리서치에서 얻고 싶은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것이 많이 반영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상하이 리서치는 11월 7일 화요일, 상하이 시내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상하이 아트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줄리 전의 강의를 통해 오버뷰를 알 수 있어서 프로그램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상하이 미술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상하이 미술계의 발달과정과 현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상하이 센터 오브 포토그래피(Shanghai Center of Photography, SCoP) 오프닝에 참석했다. 상하이 첫 번째 사진 미술관인 SCoP의 오프닝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 상하이 페어들이 열리는 일주일 내내 상하이 전역에서 오프닝과 파티가 줄지어 열리고 있어서, 상하이를 찾는 방문객들이 한번에 상하이 아트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프닝이 끝나고 상하이 영 컬렉터중 한명인 주충(Zhou Chong)의 집을 방문하여 개인 컬렉션을 관람할 수 있었다. 상하이 미술계에서 컬렉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특히 젊은 컬렉터들이 주축이 되어서 상하이 미술계를 발전시키고, 중국미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는데, 국내 미술시장의 경우 컬렉터들이 활동을 자제하는 것과 대비되는 측면이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날 주충은 미술계 인사들을 초대해 프라이빗 디너를 준비하고 있었다. 영 컬렉터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컬렉션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컬렉팅하는 작가들을 후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둘째날은 뱅크갤러리, 아이크 델라르코 갤러리, 락번드 뮤지엄을 방문하고 아트021 VIP 오프닝에 참석하는 빽빽한 일정이었다. 뱅크갤러리는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시작을 해서 상업 갤러리로 성장한 갤러리였다. 이러한 백그라운드 때문인지 뱅크갤러리는 큐레토리얼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는 젊고 역량있는 중국 현대미술 작가인 Chen Zhe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었다. 둘째날 또한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이 락번드 미술관이었다. 2010년 설립된 락번드 미술관은 미술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하이 아트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탄탄한 기획력을 기반으로 전시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는 휴고보스 아시아 아트 어워드 전시를 선보이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휴고보스가 기존에 구겐하임 미술관과 함께 진행했던 휴고보스 프라이즈(Hugo Boss Prize) 프로그램에 보강해서, 아시아 지역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상이었다. 작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권위있는 미술상 수상이 크게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 작가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아트021 페어 VIP 프리뷰 관람이었다. 페어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VIP들이 페어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세련된 옷차림을 한 젊은 컬렉터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페어장 들어가는는 먼저 상하이 전시센터의 화려한 공간이 인상적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공간이 주는 웅장함에 전시 부스 및



작품들이 많이 죽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하이 전시센터 공간이 너무 아름답다고 평을 내렸다. 아트021은 104개의 갤러리가 참여하는 페어로, 대규모 페어는 아니지만 이 프리뷰에서 모두 보기는 어려웠다. 첫날은 페어장 반만을 관람하고, 이후에 일반관람일에 재방문을 해서 전시작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무엇보다도 아트021에서는 중국의 좋은 갤러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작가 리서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아트021 페어를 관람하고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컬렉터 애드리언 쉐이 운영하는 K11 아트파운데이션의 오프닝 파티를 방문했다. 상하이 아트워크 동안 매일밤마다 여러 전시 오프닝과 VIP 파티가 개최되었는데 특히 K11 아트파운데이션은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모이는 장소였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네트워킹과 소셜라이징에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음날에는 점심에 상하이에서 10여년동안 거주하고 있는 미술전문기자 샘 거스틴과 미팅이 진행되었다. 현재 오쿠라 객원 기자로 활동하는 샘 거스틴에게 상하이 아트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함께 웨스트번드로 이동하였다. 아트021과 비슷하게 웨스트번드 페어 VIP 프리뷰에서도 세련된 옷차림의 VIP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트021이 규모로 압도했다면, 웨스트번드는 세련된 레이아웃이 인상적이었다. 일본의 오타 파인 아트가 야요이 쿠사마 작품들로 눈길을 끌었으며, 내년에 홍콩에 분관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하우스&웬스 갤러리는 붉은색으로 전시장 외벽을 칠해 눈에 띄었으며, 한스 아르프, 루이스 부르주아, 파우스토 멜로티 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아라리오 갤러리, 리슨 갤러리 등 우수한 갤러리들이 참가하여 중국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올해 웨스트번드 페어에서는 Talent라는 새로운 섹션을 선보였는데, 젊고 신진 갤러리들을 소개하는 이 섹션에서는 역량있는 갤러리,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Talent 섹터를 돌아보면서 갤러리스트들이 적극적으로 관람객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트021 페어의 경우 VIP 프리뷰에서 기존의 미술애호가 뿐 아니라 파티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온 젊은 관람객들이 많이 눈에 띄어 다양한 고객층이 존재한다고 느꼈는데, 웨스트번드 페어는 VIP 프리뷰 관람객층은 좀 더 좁지만, 기존에 미술 컬렉팅에 익숙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넷째날은 상하이 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로 유명한 파워 스테이션 오브 아트(PSA)에서 시작했다. PSA는 상하이에서 첫 번째로 현대미술을 위한 공간으로 개관한 국립 미술관이다. 상하이 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이전 방문은 2016 상하이 비엔날레 기간이었다. 이전 방문에서도 공간은 크고 좋지만 그 큰 공



간을 전시가 못 채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인상을 받았다. 이번 방문에서는 PSA 컬렉션 시리즈로 중국 현대미술 작가 리샨(Li Shan)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었다. 전시는 매우 좋았지만 관람객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줄리 전과의 미팅에서 상하이 미술관들이 블록버스터 전시 외에는 관람객수가 매우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를 느낄 수 있었다. PSA 방문 이후에는 웨스트번드의 갤러리들을 돌아보고, 웨스트번드 아트페어를 다시 관람하였다. 웨스트번드에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상하이 시가 웨스트번드 지역을 문화지구로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아라리오 갤러리 역시 올해 웨스트번드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열었고, 일본의 대형 갤러리인 오타 파인 아트 역시 이번 페어기간에 맞추어 웨스트번드에 상하이 지점을 열었다. 이처럼 해외 갤러리들이 상하이에, 특히 웨스트번드로 진출하고 있었는데 웨스트번드에 상하이 자유무역지구까지 조성된다고 하니 향후 웨스트번드의 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다섯째날은 하우스&웍스 갤러리 디렉터인 리신 차이, 아트뉴스페이퍼 차이나 담당인 리사 모비우스, 그리고 상하이 대표 컬렉터이지 탱크 상하이 뮤지엄의 설립자 차오즈빙을 만날 수 있었다. 2018년 건립 예정인 탱크 상하이 뮤지엄은 차오즈빙과 웨스트번드 지역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차오즈빙은 웨스트번드 지역에 차오 스페이스를 통해서 자신의 컬렉션을 소개하고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컬렉터이다. 차오즈빙이 준비하고 있는 탱크 상하이는 옛날 공항 시설 부지로, 다섯 개의 오일탱크를 전시공간, 북스토어, 레스토랑 등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무엇보다도 규모면에서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내년엔 이 탱크 상하이까지 추가가 되면 웨스트번드 지역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게 될지 궁금해졌다.

상하이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린 11월 12일, 프로그램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다. 마라톤 대회 때문에 상하이 지역 일대가 교통이 마비되었고, 이 때문에 아침에 예정되었던 아라리오 미팅은 취소가 되었다. 오전에는 아트021의 디렉터 중 한명인 바오이평을, 오후에는 웨스트번드로 넘어와서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의 디렉터인 저우티에하이(Zhou Tiehai)와 페어 리뷰 일정이 진행되었다. 아트페어가 끝나는 시점에 페어 디렉터를 만나서 아트페어 리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바오이평과의 미팅에서는 향후 베이징으로 진출하고자 하고 있는 아트021의 성장 배경 및 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상하이의 젊은 프로페셔널 세 명이 함께 만든 아트021은 미술계 출신이 아닌 프로페셔널 세 명이 페어를 운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설립자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페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저우티에하이와의 인터뷰에서는 페어에 대한 저우티에하이의 자부심이 눈에 띄었



다. 작년에 참여했던 갤러리 모두가 올해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디렉터의 말이 매우 놀라웠다. 'Invitation Only'라는 포맷으로 진행하면서 좋은 갤러리들만을 페어에 초대하고, 이를 통해 페어의 퀄리티에 집중함으로써 웨스트번드 페어는 다른 페어와 차별화된 부띠끄 아트페어를 지향하고 있었다.

저우티에하이와의 인터뷰를 끝으로 5박 6일 일정이 끝이 났다. 상하이 아트워크를 돌아보면서 상하이와 중국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상하이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컬렉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다. 또한뱅크 갤러리 디렉터와의 미팅에서 상하이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이 홍콩 등 국제적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정부 규제 및 관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갤러리들이 앞다투어 상하이의 페어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지역이 시장성이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상하이가 어떻게 국제 미술계의 주요 거점도시로 성장할지 궁금해지면서, 갤러리스트로서 필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상하이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프로그램이었다.

글. 주은영

주은영은 2017년 10월 한남동에 개관한 현대미술갤러리 AMC Lab의 Associate Director이다. 2013년부터 미술시장 전문 리서치 회사인 에이엠컴파스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며 아트마켓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7년 AMC Lab을 오픈하여 동시대의 최신 흐름을 보여줌과 동시에 과거 및 미래와 연관성 있는 미술작품을 전시하고자 한다. 홍콩 미술시장의 성장을 조망한 책 <아트마켓 홍콩>(아트북스)의 공동저자로, 이화여자대학교(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예술경영·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 본 기사에 수록된 사진 및 글의 저작권은 필자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사진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